

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 AI·플랫폼 중심 금융혁신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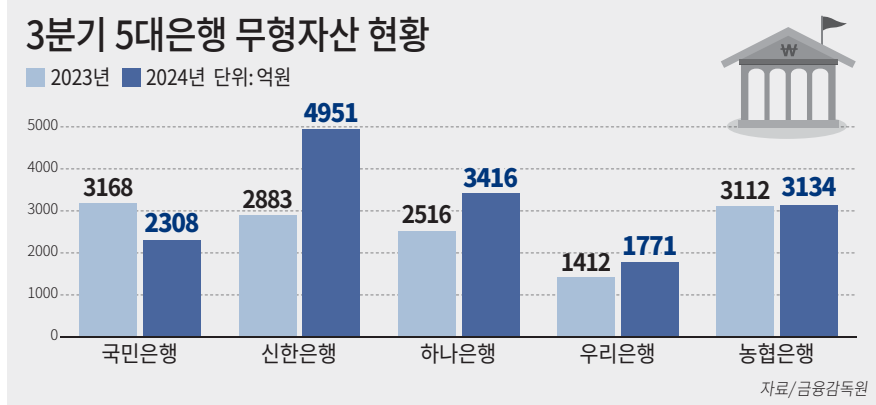
지난해 5대 은행, 전산투자 19%↑ 디지털경쟁력 위해 무형자산 늘려

신한은행, 디지털이노베이션 신설 국민은행, 금융AI센터 확대 개편 하나은행, 디지털혁신그룹 확대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플랫폼 등 전산투자에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로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업무를 하는 고객이 늘면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 규모는 지난해 3분기(7~9월)말 기준 1조557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3091억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수준이다.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브랜드가치(상표권), 기술력, 인적자원 등을 말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무형자산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951억원으로 1년전(2883억원)보다 71.7%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2023년 3분기 말 2516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416억원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무형자산이 35.8% 늘었다. 우리은행은 같은기간 1412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분기 3134억원으로 1년전(3112억원)과 비교해 0.7% 늘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분기 2308

억원으로 같은 기간 27.2% 줄었다.

시중은행들이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사용하기 쉬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객층을 넓히자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 관련 자산규모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내·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은행은 기존 금융AI센터를 1·2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각 센터장에 LG와 엔씨소프트 출신 인사를 선임했다.

신한은행은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을 신설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전략 기능과 신사업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AI·디지털그룹을 ‘디지털 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AI를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AI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IT 관련 인력과 예산은 늘고 있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신한라이프 영업전략회의 “시장 판도 바꾸는 영업 경쟁력 혁신”

신한라이프는 2025년 성공적 영업경쟁력 혁신을 위한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업전략회의는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각 채널 사업그룹장과 지점장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C, DB, B2B 사업그룹 순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첫 번째로 열린 FC채널 행사에서 신한라이프는 올해의 경영전략 슬로건을 ‘TOP2를 향한 질주, 밸류업(Value-Up), 투게더(Together)’로 발표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영업 경쟁력 혁신’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가장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갈 예정이다. 중장기 가치 성장에 중심을 두고 ▲각 영업채널 차별화 ▲상품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 ▲영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계획 달성을 추진한다.

이영종 사장은 “지난 2024년 혁신과 도전을 통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TOP2 가속화에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어려운 영업환경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영업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라이프생명 보험금 청구 디지털 담보범위·한도 확대

KB라이프생명이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한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청구 담보범위와 청구금액 한도 증액으로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존에 입원·수·통원 등 일부 담보에 한정된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가 사망·재해를 포함한 모든 담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사망 보장의 보험금 청구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1억원으로 상향했다.

사망·재해 보험금 청구 시 서류준비가 부족한 경우 고객이 비대면으로 직접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0.5일에서 오는 2027년까지 0.3일로 줄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금융위, 13일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시중은행 주담대 0.55~0.75%p ↓ 저축은행은 1.64%서 1.24%로 내리

앞으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사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 규정상 별도의 항목을 가산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 규정상 별도의 항목을 가산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회원사에 적용할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평균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하락했다. 이어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0.83%에서 0.72%p 내린 0.11%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

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떨어진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9억 달러 돌파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번째 규모 박상우 장관 “2조 달러 시대 이끌 것”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누적 기준으로 1조 달러(1458조원)를 넘어섰다. 지난 1965년 첫 해외수주 이후 59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억1000만 달러를 수주해 누적 수주금액이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

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80% 이상 집중적으로 진출해 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022~20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도 이뤄졌다.

공종 기준으로는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했으며, 최근에는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가 강세를 나타냈다.

수주국가별로는 누적 기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7.7%를 차지했으며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등의 순이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이 14.5%를 가장 비중이 높았고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원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전타입 마감

청약 평균 경쟁률 18.55대 1 기록 전용 74㎡형 경쟁률 552.67대 1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게 몰려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9일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558가구 모집에 1만353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8.55대 1로 접수 마감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면적 74㎡형으로 3가구 모집에 약 1650여 명이 몰려 552.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 물량 중 전용면적 74㎡ 3가구와 84㎡ 111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용 105㎡, 112㎡, 120㎡ 등 중대형 면적이다.

1순위 청약 당시 1414가구 모집에 2만121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면적 59㎡A형으로 19가구 모집에 4054명이 몰려 268.53대 1의 경쟁



‘서울원아이파크’ 건보주택을 찾는 방문객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률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많은 242세대를 모집한 105㎡A형은 603명이 접수해 2.49대 1, 241세대를 모집한 120㎡A형도 521명이 접수, 2.6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12㎡B형 ▲112㎡C형 ▲120㎡C형 ▲143㎡형 ▲145㎡형 ▲159㎡형 ▲161㎡형 ▲170㎡형은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미달됐다.

112㎡C형의 경우 18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 절반에 불과했다.

/전지원 기자 jiw13@